

방재시험소에 거는 기대

# 防災의 科學化에 核心역할을



林 寬  
〈KAIST 院長・工博〉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1985년 완공을 목표로 방재시험소 설립을 추진중에 있는바 이는 방재기능의 선진화 및 과학화를 도모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방재연구기관의 설립은 서구나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각종 재해의 과학적인 예방의 기능은 물론, 방재조사연구업무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발전시켜 고도산업사회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에서는 1889년에 이미 방재연구소를 설립하여 방재연구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과학기술청 산하에 국립방재과학기술센터를 1963년에 설립하여 재해발생의 다양화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방재대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1948년에 소방연구소를 설립하여 산업시설의 안전연구는 물론 주택의 연소방지등에 전념하여 현재는 최고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이미 1860년대에 보험회사가 주축이 되어 「공장상호보험기구연구소」와 「보험업자시험소」를 설립하여 국가정책에 따라 화재예방 및 각종 안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전

시를 대비해서 화재 및 연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세계 최첨단의 기술을 개발, 활용하고 있다.

화재보험협회가 추진중에 있는 방재시험소의 설립은 화재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은 물론, 화재기초시험연구, 방화제품시험연구, 방재기술정보처리업무, 방재조사연구업무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재난으로부터 미리 보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설립되는 방재시험소는 장기적인 국가방재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 연구 분석하여 국가기관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방재대책수립에 근간을 이루고 방재의 과학화를 이루는데 핵심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방재공학은 종합공학으로 전기, 건축, 기계, 화공분야등의 집합체로서 이들 각 전문분야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종합적으로 연구와 조사가 수행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새로 설립되는 방재시험소는 제한된 인원과 시설등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정부산하 국립연구소와 학계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종합공학으로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될 것이다.

끝으로 방재시험소의 설립을 과학기술에 몸담고 있는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싶다.\*